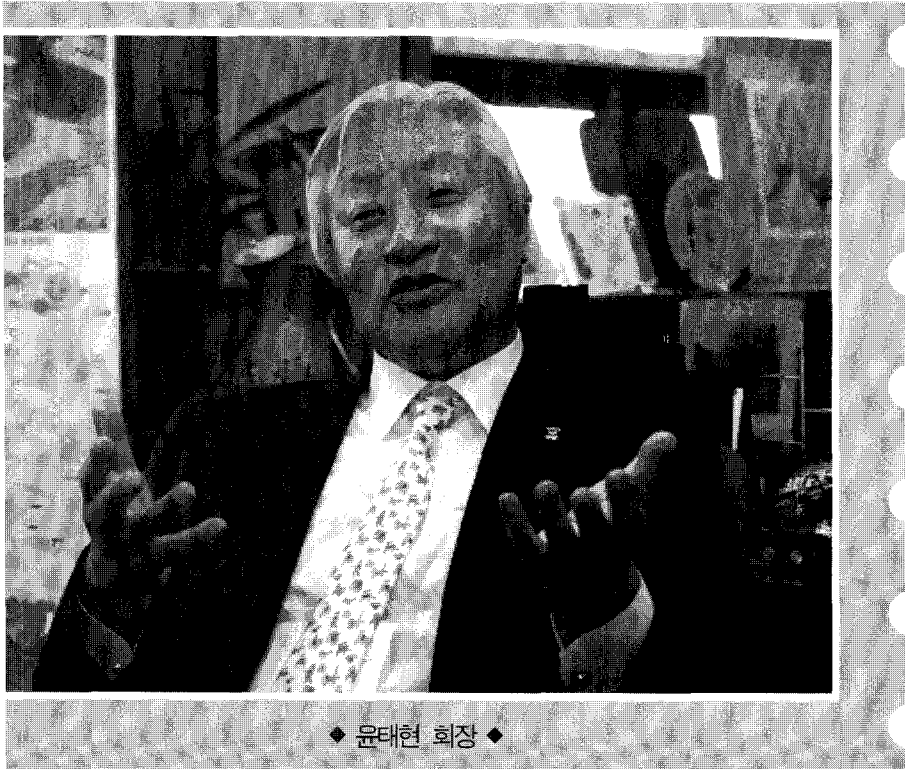


제주도 축산업계의 거목

윤 태 현
탐라가족 회장



◆ 윤태현 회장 ◆

제주도에서 탐라그룹 윤태현 회장의 이름 석자를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다. 그는 5대째 제주도에 뿌리를 내려오고 있는 제주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토박이다.

대학시절과 군 생활을 빼고는 제주도를 떠나본 적이 없는 윤 회장은 사료산업에 몸담은 지난 30여년 동안 도는 물론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공을 세운 사람으로 주위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윤태현 회장(63세)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가공학과를 졸업한 후 1977년부터 1989년까지 (주)퓨리나코리아 지역부장을 역임한 후 곧바로 지금의 탐라사료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전문경영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 89년에 설립한 탐라사료는 인수할 당시부터 윤 회장의 두드러진 배짱을 엿볼 수 있었다. 당시 윤 회장은 25억원의 탐라사료

를 자기자본 3억원을 가지고 인수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이후 윤 회장은 피나는 노력으로 탐라사료를 모태로 시작하여 20년만에 (영)탐라유통, (주)설향, (주)제주동물테마파크, (주)제프바이오, 유일산업(주), 탐라산업개발(주), 쌍용통운(주), (주)아라커뮤니케이션즈, (주)나누리 등 굵직한 1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총수로 우뚝 서게 됐다.

지금의 탐라가족이 있기까지는 윤 회장의 당차고 두둑한 배포와 추진력이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최고경영자의 윤태현 회장은 늘 깊은 고뇌속에 있다고 한다.

“지금의 탐라가족이 있기까지는 우리 10개 계열사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가족 처럼 일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탐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탐라는 노사분규가 없기로도 유명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모든 공로를 전 직원들에게 돌렸다.

이어서 윤 회장은 말한다. “모든 일은 직원들에게 맡겨두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야 하는 큰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일을 결정 하게 되는 때는 정말 고독합니다.



◆ 직원 회의 모습 ◆



◆ 직접 목장을 돌며 직원들과 일을 하기도 한다 ◆

나보다는 우리 전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생각해서 사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은 직원들 모두가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최고경영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놓는다.

윤 회장이 현재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바로 ‘제주동물테마파크’다. 윤 회



◆ 제주 동물테마파크 조감도 ◆



◆ 제주대학 특강 ◆

장의 말에 따르면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소비자들 이 직접 이곳 자연속에서 동물들과 어울리며 또한 탐라유통에서 생산 판매되는 각종 육류들을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화형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내년 말 부터 일부를 우선 개방하여 앞으로 4~5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테마파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싶다는게 윤 회장의 생각이다.

탐라가족 10개의 계열사들을 얼핏 보면 각자 전혀 다른 업종인 것 같지만 모두가 연관 산업으로 구성돼 있다. 말이나 돼지(브랜드명 : 한라산 도야지) 등의 사육을 위한 배

합사료생산, 사육된 축산물의 가공 유통을 맡고 있는 탐라유통, 말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의 화장품 생산, 사료원료를 실어 나르기 위한 쌍용통운, 테마파크를 짓기 위한 탐라산업개발 등 톱니바퀴처럼 얽혀 빈틈없이 돌아가는 10개 계열사는 제주도의 축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 회장이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 또한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일일이 전부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고문을 역임하고, 제주도의회 4대의원을 역임하며 도의 애로사항들을 세심하게 해결하여 행정적 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장, 국제

라이온스협회 354-지구 총재 역임, 제주 경영자총협회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그의 행적은 화려하다기도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팔방으로 뛰어다닌 땀의 흔적이 보인다 하겠다.

끝으로 윤탤희 회장은 우리 사료산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사료산업은 위기 일로에 서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 즉 페어플레이 정신이 상실되고 과열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마구잡이식 깎

아주기 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제살 깎아먹기 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정하게 품질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

윤탤희 회장은 지금까지의 사업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축산·사료산업 발전은 물론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싶다고 다짐한다. 윤탤희 회장의 이러한 소망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

〈글·사진/ 조사팀 권영길 차장〉